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보부

뉴스초점

'97가변형축사표준설계도 보급

규모에 맞게 선택폭 다양화

농림부가 축산농가의 축사건축시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보급해 오던 축사 표준설계도가 다양하지 못해 농장부지에 따라 새로 설계를 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2년에 건설부의 승인을 받은 축사표준설계도 외에 농가 실정에 맞게 폭은 고정하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가변형 축사표준설계도를 제작하여 지난 '97년 12월 23일자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보급하고 있다.

계사는 '92축사표준설계도에 이번에 보급하는 산란계사 3개종(가변크기 35종, 36종, 40종)과 육계사 1개종(가변크기 46종)으로 다양화시켜 재료, 환기, 길이에 따라 계사를 건축할 때 선택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98축발기금운용 변경

사육기반 확충사업비 대폭 감소

농림부가 금년에 운용하게 될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발표하였다.

운용계획 중 사육기반확충인 닭경쟁력 강화사업은 당초 4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100억원으로 300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축산단지조성 예산은 265억원 중 82억원이 삭감 182억원으로 조정되어 닭은 9개소에 65억원이 배정되었다.

가축계열화는 닭이 5개소에 131억이, 계란가공시설 1개소에 16억원 등으로 변경한다고 발

표하였는데 현재의 농가 경영상태가 부실하여 양축자금을 축산경영자금으로 변경 6,200억원의 당초예산에서 1천억원 가량 증액하여 지원할 예정이어서 시설개선자금은 일단 중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긴급경영자금을 편성하여 계열주체, 원종계, 종계 및 일반농가에 투입하고 있는 단계여서 시설자금지원은 사실상 중단될 여지를 안고 있다.

이번에 지원된 긴급경영자금은 계열주체에 389억원, 원종계부분에 30억원, 종계부분에 60억원, 일반농가에는 농가당 5천만원 이내에서 담보설정후 연 8%의 이자로 1년 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되었다.

연도·분기별 육용원종계 수입실적

(우우기준, 단위:수)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97	0	33,700	10,000	36,140	79,840
'96	0	52,918	9,818	47,000	109,736
'95	21,918	32,000	15,600	54,618	124,136
'94	6,318	17,000	21,000	39,818	84,136
'93	6,318	24,300	8,000	48,318	86,936

육계계약사육량 감소

일반사육 비중 높아져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되었다는 판단과 함께 생산을 근본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계열주체는 계약사육을 줄이

는 대신 일반사육 농가들은 오히려 입식을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도계장들이 소비부진으로 도계수준을 예년보다 30~40%씩 줄인 금년 동절기에도 육계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증가한 결과로 보아 일반 육계사육 농가들이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무리한 입식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일시적인 가격등락이 있다해도 냉동비축량이 많아 출하시점의 물동량 분석을 철저히 하여 입추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취가 살모넬라 전파

종합적인 구서대책 필요

많은 나라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 때문에 식품을 보다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살모넬라 엔테라티디스(SE)와 타이피뉘름(ST)인데 이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란 매우 큰 어려움이 있어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에 일본의 계병연구회가 WHO의 자료를 토대로 계란과 닭고기를 보다 완벽하게 생산하기 위해 살모넬라에 대한 전파경로를 조사한 결과 쥐가 전파매개체로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가금티푸스 예방차원에서 구서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계**